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로서 성령강림절기가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는 강림절기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11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는 성탄절에 세례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내시고 예비교육에 참석하십시오.

2009년도 교인전화번호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와 선교회는 일년 동안의 활동을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5일(화) 오후 2시부터 우리교회에서 감리교 선교국과 환경선교위원회가 주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17일(월) 유증희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 청년부의 정은영씨가 한명훈씨와 결혼을 합니다. 예식은 29일(토) 오후 2시에 평택 서정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2시간만 새롭게 남을 위해 써보십시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하나님, 진눈깨비 흩날리며 성큼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무들은 낙엽을 모두 떨구고 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인생의 덧없음과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주저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국절을 맞아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는지를 겸손히 살피게 해주십시오.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근종 정옥영 권미숙 김준호 곽혜자 김윤수 박상호 김혜권 박애순
안정숙 이봉옥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우 최윤희 정완수 김재광
오재환

월정헌금:

김성자 김현영 정원석 김정애 박경원 박옥순 배부레 송임희 유증희
이재문 이인웅 조순덕

감사헌금:

한상의 정영선 한계선 류순현 감리교신학대학목신원10기 김경찬
강미라 이명희 정복순 김은주 정은영 이범희 무명7

생일감사

조병무 조관행 홍선희 오복순

녹색공헌금 :

장원호 박성희 허정윤 초록장터 제3나오미선교회 (누계: 6,421,000원)

	장혜숙	장혜숙	고숙이	정두리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김윤수
	임정자	임정자	진정애	서원금
	문영혜	박경선	이명희	곽혜자
	안정숙	박애순	진정숙	최희영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김경수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정애
	최숙화	권미정	이감재	최숙화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황선희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김희우	백혜숙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이영란	박미영	이영란	방극숙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박혜경

상처에 대하여

오래 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씩어썩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즈음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을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몇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꾀다
 오래 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 복효근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이란 것은 주로 섬기고 살아갈 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가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유건형	기도 / 이은자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조관행 집사

11월	영접위원	윤석철 홍순구 박규석 안정숙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정경례(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나는 걷는다, 다시 8백 킬로미터

파리의 몽파르나스 역에서 출발한 초고속전철 테제베는 네 시간 만에 바욘Bayonne 역에 섰다. 이곳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생장피드포르St.Jean Pied-De-Port역에 내리니 오후 네 시. 순례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내일부터 한 달간 걸을 길의 이름은 카미노 데 산티아고 Camino de Santiago. 프랑스-스페인 국경에서 시작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서쪽의 산티아고 시까지 이어지는 8백 킬로미터의 길이다.

2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서른 셋의 나이에 세상을 구원하고 죽은 예수, 그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걸어왔던 길. 길의 끝 산티아고에는 그의 무덤이 있어 천 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순례자들이 찾아오곤 했다.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 버린 길. 그 길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다.

2001년에 한반도의 남단 820킬로미터를 걸은 이후, 걷는 행복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한 발짝도 더 뻗 수 없을 때까지 걷다가 문득 멈춰 돌아보는 세상은 조금 더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듯했다. 수많은 상념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다시 떠오르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비워지는 경험. 그 찰나의 몰입과 비움은 늘 경이로웠다. 긴 여행을 시작한 이후 늘 어딘가 낯선 도시를 걷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가끔씩 충족되지 않는 갈증이 타올랐고, 그럴 때면 내가 하는 여행이 진정 내가 꿈꾸었던 방식인가 스스로에게 되물곤 했다. 그러던 중, 네팔에서 우연히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프랑스인이 쓴 <나는 걷는다>라는 책을 읽게 됐다. 그 책을 읽으며 나는 전율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길었고, 그만큼 위험했다. 겁 많고 소심한 내가 선택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 그는 책머리에, 실크로드를 걷기 전에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었다고 썼다. 그때부터 그 길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오늘 ‘카미노 데 산티아고’의 출발점인 생장피드포르에 나는 서 있다.

생장피드포르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산티아고협회를 찾아가 순례자 증명서를 받는 일이다. 길을 물을 필요도 없이 배낭 멘 이들을 따라가니 협회 사무실이 나온다.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벽에 붙은 통계자료를 읽

어본다. 2004년 한 해, 이 길을 걷은 사람은 21,544명..... 접수증에 국적과 이름 등을 기입하는데 이 길을 걷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질문이 나온다. 1. 종교적 이유 2. 영적인 이유 3. 문화적 이유 4. 스포츠 5. 기타 나는 ‘2. 영적인 이유’에 동그라미를 친다. 서류를 접수하고, 증명서에 첫 도장을 받는다. 지금 내 증명서에는 겨우 도장 하나가 찍혔을 뿐이지만 하루하루 길을 걸어감에 따라 증명서의 도장도 하나씩 늘어가겠지. 협회에서 일러준 순례자 전용 숙소인 알베르게를 찾아간다.

짐을 풀고 있자니 한눈에 보기에 강인한 인상의 여성이 들어선다. 상하이의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레이첼. 그녀는 이 길을 두 번이나 걸었던다. 처음에는 내가 걸을 일반 코스로, 두 번째는 프랑스 북부 르 뤼Le Puy에서 시작하는 1천 5백킬로미터 코스로. 지금은 피레네 산맥을 종주하기 위해 혼자 여행하는 중이다. 레이첼은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게 전해준다.

“첫 순례 중에 만난 프랑스 아저씨가 잊혀지지 않아. 그 아저씨는 아내가 병으로 죽은 후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 길을 걷기 시작했대. 순례 중에 우연히 아내와 같은 이름의 마을을 발견한 아저씨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 한참 울고 난 후에 나를 돌아보던 아저씨 얼굴은 한결 맑아진 것 같았어. 이 길이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 아저씨도 그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셈이지.” “내가 만났던 또 다른 남자는 독일인이었어. 그 사람은 중세 시대의 순례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걸겠다고 순례를 시작했어. 작은 가방 속에 갈아입을 옷만 한 벌 넣고, 돈 한 푼 지니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어가며 이 길을 걸었대.” “대단한 걸.”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건 이 길이 산티아고로 향하기 때문이야. 이 길에서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이 길을 걷는 동안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되거든. 두 번의 산티아고 순례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길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덕분에 이 길이 풍성해졌어. 너에게도 분명히 행복한 여행이 될 거야. 이 길에 서게 된 걸 축하해.” 레이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와 따뜻함이 밀려든다. 짐을 풀고 마을의 성당으로 간다. 사람들이 밝혀놓은 촛불 앞에 두 손을 모은다. “이 길 위에서 내내 깨어 있게 하소서. 제 앞에 기다리고 있을 기쁨뿐 아니라 슬픔과 고통마저 기꺼이 껴안을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 길의 끝에 섰을 때 더 깊어지고, 맑아지고, 넓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멘.”